

고용노동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6월 24일(월)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오늘(7. 3.)부터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감독에는 사고현장 수습과 유가족 지원, 중대재해 수사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인력을 일시에 투입한다.

이번 감독에서는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서 법에 따라 행·사법 조치하고,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7일(목) 주요 전지(배터리) 제조 사업장에 대해 긴급 현장지도를 시행하고, 동종·유사 사업장에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점검 등도 준비하고 있다.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윤미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이철호 (044-202-8904)
담당 부서	경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책임자	과 장	박상환 (031-259-0250)
		담당자	팀 장	안용일 (031-259-0274)